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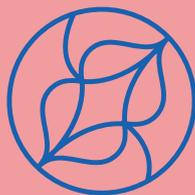
KISS Guide Book



이 책은 선택 교재 및 강의를 처음 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책은 고1 때 영어 모의고사 5등급을 받던 사람이, 고3 때는 1등급을 받고, 삼수 때는 밥먹듯이 100점을 받고, 대학에 와서는 수능영어를 넘어 영어의 끝판왕인 professional 통역사(통역장교)까지 이룬 사람이 쓴 것이고, 무엇보다 최근 몇 년 수능영어 출판계에서 가장 핫한 사람이 쓴 것입니다. 굳게 믿으셔도 좋습니다.

'수능영어'의 각 분야에 대한 선택의 insight와 direction이 담겨있습니다. 잘 탐독하셔서, 수능영어 및 선택 교재, 수업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을 갖길 바랍니다.



KISS 영어연구소

KEEP IT SHORT AND SIMPLE

Intro

1. INTRO A: 수능영어란 무엇인가?
2. INTRO B: 무엇으로 수능영어를 공부할 것인가?



키스 가이드 북



INTRO A: 수능영어란 무엇인가?

수능영어가 아닌, '영어'에는 reading, listening, speaking and writing이 있다. 앞 두 영역은 수동적 활동, 뒤 두 영역은 능동적인 활동이다. 수능영어는 이 4개의 분야 중 reading, 즉 '독해'만 물어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이 아닌 '평가원' 듣기는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라면 문제가 없어야 정상(미안,)이다. 그럼에도 듣기가 부족한 친구라면 지금 당장 Masterpiece 영어모의고사의 듣기 저자이기도 한 김희훈 저자님의 듣보잡을 구매해 학습한 후 올해 EBS 영어듣기 교재를 부단히 학습하시길 바란다.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수능영어를 한다는 말은 '영어독해를 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영어로 된 하나의 지문을 읽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다.



키스 가이드 북



위 문장을 좀 뜯어보자. 둘로 나누면 '영어로 된 하나의 지문을 읽고 /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행위가 된다. 수능영어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된' 지문을 읽어야 하는 것이다. '영어를 모르면 애초에 읽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것. **그러니 제발 어휘 암기와 문장 해석을 게을리하지 말자.** 단어를 모르고 해석을 할 줄 모르는데 읽고 이해하고 문제를 풀겠다는 것은 사기꾼이다. 영어 단어를 모르고 해석을 못하는데 문제를 푸는 것과 히브리어 문제를 푸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수능 지문의 모든 단어를 알고, 모든 문장을 해석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일정 수준은(지문의 7.80% 이상) 단어를 알고 문장을 해석할 줄 알아야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이다. 고2 지문과 고3 지문, 그리고 수능 지문의 차이는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다. 내가 고2 때 지문 단어, 문장의 7.80%를 알아서 문제를 푸는 데 지장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같은 수준으로 고3을 올라오면 지문의 단어와 문장을 5.60%밖에 알지 못하니 탈탈 털리는 것은 당연지사.

정리하자. 수능영어는 수능+영어인데, 우선 이 '영어 실력'부터 고3 수준으로 만들어 놔야 이를 활용해서 '수능독해를 할 수 있다는 것. 단계로 치면 '단어 암기' → '문장 해석' → '지문 독해'가 되겠다. 등급이 낮을수록 단어 암기, 문장 해석의 비중이 훨씬 높아야 하고, 등급이 높을수록 좀 더 지문 자체의 이해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단어 암기

지문 독해



문장 해석



키스 가이드 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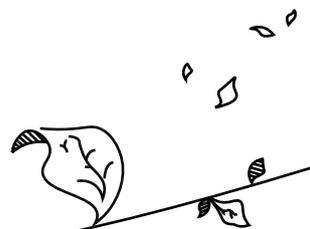


INTRO B: 무엇으로 수능영어를 공부할 것인가?

이제 우리는 단어를 열심히 외우고, 외운 단어로 열심히 문장 해석 연습을 하고, 이렇게 영어가 되는 상태에서 수능영어 지문을 독해하면 된다. "아니 쌤, 그러면 다시 단어장 파고 구문책 파야 하는 건가요? ㅠㅠ" 노노. 단어장만 파고 구문책만 파는 행위는 고2 때까지 하는 것이고, 절평영어 70점 이상인 고3이라면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럴 시간도 없다. 셉티가 원하는 것은 '총체적 학습'이다. 무슨 얘기가냐, 단어장 따로, 구문책 따로, EBS 교재 따로.. 이런 게 아니라, EBS 및 기출 '지문'에 있는 단어와 문장을 가지고 어휘, 해석 학습도 하자는 얘기가.

'총체적 학습'

현 수능영어 체제에서는 이 총체적 학습을 '특히 EBS 지문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2021학년도 수능까지는 수능영어 킬러 문항 중 7지문이 EBS에서 거의 그대로 나오기에 (2022학년도부터는 그 해 6평을 봐야 알 수 있다), EBS 지문들로 부단히 단어를 외우고 문장 해석 연습을 하며 영어 공부를 하며 영어 실력을 늘리면, 수능날 그 지문이 또 보일 것이고 이 심리적, 시간적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렇게 EBS로 어휘와 해석을 늘리고, 마지막 단계인 '지문독해를 수능 기출로 하는 것이다. 당연하다. 수능영어 시험을 보는 것이기에 '수능 지문'은 어떤 논리로 흘러가는가를 알려면 수능 기출로 해야 한다. 이미 고3 수준의 단어, 해석력을 갖추었다면 이 마지막 단계는 '금방'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공부할 수능영어 자료는 EBS 교재와 기출이라 할 수 있고, 둘의 비율은 7:3이 적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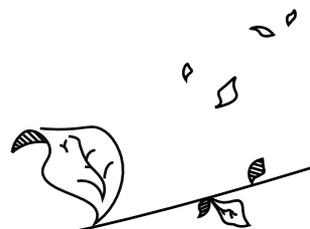


키스 가이드 북



EBS 7기출 3'

션티 수업의 중점은 '지문독해'에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단어 암기, 문장 해석은 전적으로 스스로 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강의 장점은 이것을 강제로 '관리해준다'는 데 있다. 반면 지문독해는 혼자하기가 힘들다. 이제 단어도 알겠고 문장 해석도 어느정도 하겠는데, '지문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모른다. 그 길을 명확하게,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이 내 역할이며, 그것이 KISS LOGIC이라 할 수 있겠다. KISS LOGIC에 관해서는 '독해' 부분에서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우선 어휘, 해석, 독해 순으로 한 영역씩 찬찬히 살펴해보도록 하자.



어휘

1. What. 무엇을 외울 것인가.
2. INTRO B: 무엇으로 수능영어를 공부할 것인가?



키스 가이드 북



3-B-a. 접두어(prefix): 주로 의미를 반대, 부장으로 만든다. 혹은 '시간, 방향, 정도'의 의미를 더해준다.

The most common prefixes. 출처의 페이지를 셉티가 수능에 맞게 가감, 해설.

(출처 <https://dictionary.cambridge.org/grammar/british-grammar/prefixes>)

prefix	meaning	examples
anti-	against/opposed to (반대)	anti-government(반정부) anti-racist(반인종차별(주의))
auto-	self(자신)	autobiography(자서전) automobile(자동차)
de-	reverse or change (역 or 변화)	decontaminate(오염을 제거하다 (contaminate: 오염시키다)) demotivate(의욕을 꺾다)
dis-	reverse or remove(역 or 제거)	disagree(동의하지않다), displeasure(불쾌) disqualify(자격을 박탈하다)
down-	reduce or lower(감소 or 낮춤)	downgrade(격하시키다) downhearted(낙담한)
extra-	beyond(넘어선)	extraordinary(비상한) extraterrestrial(외계의)
hyper-	extreme(극도의)	hyperactive(활동 과잉의) hypertension(활동 과잉의, 고혈압)
il-, im-, in-, ir-	not(아닐 불(不))	illegal(불법의), impossible(불가능한) insecure(불안정한), irregular(불규칙적인)



키스 가이드 북



prefix	meaning	examples
inter-	between(사이의, 상호의)	interactive(상호작용하는) international(국제적인)
mega-	very big(매우 큰) important(중요한)	mega-deal (대형 거래)
mid-	middle (중간)	midday(정오), midnight(자정) mid-October(10월 중순)
mis-	incorrectly(부정확하게) badly(나쁘게)	misaligned(어긋난) mislead(오도하다(잘못 이끌다)) misspelt(철자가 잘못된)
non-	not (아닐 미(未))	non-payment(미지급) non-smoking(금연)
over-	too much(과도한)	overrate(과대평가 하다) overcharge(금액을 많이 청구하다)
out-	go beyond(넘어가다)	outdo(능가하다) out-perform(더 잘하다) outrun(더 빨리 달리다)
post-	after (후(後))	post-election(총선 후) post-war(전후)
pre-	before (전(前))	prehistoric(선사시대의) pre-war(전쟁 전의)
pro-	in favour of(~을 찬성하여, 친(親))	pro-democracy(친민주주의)
re-	again(다시, 재(再))	reconsider(재고하다(다시 고려하다)) redo(다시 하다)
semi-	half(반(半))	semicircle(반원) semiconductor(반도체)



구문

1. 명사

2. 동사

3. 수식



키스 가이드 북



1. 구문

단어가 어느 정도 되면 활용해서 **문장들을 해석**해본다. 중요한 건 이제 외운 단어의 일차적인 뜻에서 **벗어나려는** 연습도 많이 해야 한다. 이걸 수업 때 계속 언급할 것. 그리고 이제 '구문'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쉽게 말해 문장 구조, 성분을 파악하는 능력이다. 셉티는 이 '구문'은 기본만 알고나서, 이를 활용해 최대한 자신이 한국어로 해석을 많이 많이 많이 해야 한다는 주의이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때 그 때 채워가는 것이지. 사실 막히는 게 단어, 표현을 몰라서 막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구문을 몰라서 막히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 그러니 기본 구문 강의를 하나 듣고 그 교재를, 혹은 시중의 기본 구문 교재 하나를 여러 번 복습하는 정도면 이론적인 측면은 끝난다고 본다. 그래야 기본적으로 쓰는 용어는 알고 수업을 알아들을 수 있다.(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주어, 보어, 목적어, 접속사, 관계사..).

결국은, 어떤 단어, 표현이 나왔을 때 바로 **한국어로 어떻게 해석하는 거지?**이다. 여기서 포인트는 '한국어'이다. 따라서 영어의 일차적 의미에 집착하지 말고 문맥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한국어가 자연스러운가?**를 생각하면 많은 해석이 쉬워진다. 이는 수업 때도 그 방법을 왕왕 언급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자. 여기서 바로 영어의 고인물 질문 중 하나인,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한국어로 받아들여야 하나요?**에 대한 답이 된다. 딱 정해준다. **한국어로 해석하자.** 자, 이제 중요한 거 얘기하니 잘 읽자. 영어 모의고사 5등급에서 시작해서 국내파 통역장교까지 이룬 굴지의 국내파 영어 고수로서 깨달은 바를 얘기하건대, 이걸 **단계적인** 것이다. What's your name? 방금 네가 이 문장을 한국어로 바꿔 이해했나? '네 이름이 뭐니?'라는 문장이 머릿속에 떠올랐을지 몰라도, 이는 정말 자동적으로 떠오른 것일 뿐이고, 사실상 너는 이 문장을 거의 **영어 그 자체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키스 가이드 북



형태	해석
That S V	~하는 것을
To v	~하는 것을
Ving	~하는 것을
Which S V	~인지 아닌지를
When S V	언제 ~하는지를
Where S V	어디서 ~하는지를
What S V	~하는 것을
How S V How 형/부 S V	어떻게 ~하는지를(~하는 방법을) 얼마나 ~하는지를
Why S V	왜 ~하는지를(~하는 이유를)

2. 동사

영어 문장의 '구조'를 결정하는 품사는 '동사'다. 즉 우리는 주어 그리고 동사를 보고 이 문장의 전체 모습을 이미 머릿속에 그릴 수 있다는 것. 그러니 문장의 앞부분을 읽으면 이미 문장의 뒷부분을 예상하면서 해석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5형식이라는 것을 배웠을 것이다. 이 5형식이 바로 동사를 기준으로 문장을 나눈 것이다. 1형식 동사, 2형식 동사, 3형식 동사 뭐 이미 고1, 고2 시절 이 형식들에 대해 잘 학습하였고 적용 연습을 많이 하였다면 좋다.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다.



키스 가이드 북



그렇지 않은, 소위 너무나 기본이 없이 지맘대로 해석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가장 simplified된 영어 문장의 두 가지 구조를 알려주고자 한다. 영어의 동사는 크게 보자면 두 종류로 나뉜다.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 전자를 우리는 타동사라고 하고, 후자를 자동사라고 한다.

1. S V X(없음'의 X이다. SVX는 방금 내가 만든 거다.)

2. S V O('목적어'의 O)이다.

1번과 2번의 차이는, 목적어의 유무이므로 해석 시 동사 뒤에 목적어를 만드는 한국어 조사인 '을(를)'을 붙이냐 안 붙이냐의 차이이다. 이렇게 동사를 보고 뒤에 '을(를)'을 붙일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만 신속하게 되어도, 즉 그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만 알아도 해석의 속도와 질이 아주 좋아진다. 나는 이제 동사를 보고 뒤에 목적어가 오는지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여기서 나와야 하는 질문. "쌤, 그럼 동사를 외울 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도 외워야 하는 건가요?" 답은 sadly, yes다. 헌데 우리 여집합의 원리를 조금만 생각하자면, 자동사를 다 외우면 타동사는 외우지 않아도 되고, 반대로 타동사를 다 외우면 자동사를 외울 필요가 없다. 그리고 다행히, 영어에서는 자동사가 타동사보다 훨씬 적다. 파레토 법칙 마냥 2:8 정도의 느낌이다. 그러니 우리는 수능 수준에서 자주 쓰이는 '자동사'를 외워두면, 80% 정도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목적어가 있는 것처럼, 즉 '을(를)'을 붙여서 해석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가면 좋다. 그럼 이제 대표적인 자동사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기존 형식 공부에서는 '1, 2형식'에 해당하는 동사들이다. 틱이 있다면, 자동사의 경우, 목적어가 없는만큼 '주어'에 더 무게가 실리는 친구들이다. 예를 들어 live, die 와 같은 동사들을 보자. 보통 '내가' 살고 죽지, 살고 죽는 것으로 누군가에게(목적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독해

1. 명사

2. 동사

3. 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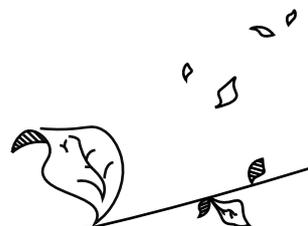
키스 가이드 북



Chapter 3. 독해(KISS LOGIC)

수능영어의 마지막 단계, 독해이다. 어휘가 한 단어에 관한 것이었고, 구문이 한 문장에 관한 것이었다면, 독해란 한 지문에 관한 것이다. 단어와 문장 해석이 나뉘는 수능 지문의 7, 80% 정도 무난히 잘 된다면, 어떻게 독해할 것인가에 집중해도 좋다. 딱 이런 친구들이다. '지문 단어도 거의 다 알겠고, 해석도 거진 되는데, 읽고 나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답을 못고르겠어요' 이제 독해를 연습하면 된다. '하나의 지문을 어떻게 읽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답과 연결시키는지.

위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쉽게 말해 지문을 읽을 때 '아무 생각없이 읽어서'이다. '생각을 좀 하면서 읽어야 한다. 사실 이 문제는 국어 비문학에서도 적용되는 것이다. 내가 생각을 하면서, 정보를 나름대로 처리하면서 읽어야 읽고 나서 남는 게 있고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더라도 어디로 돌아갈지를 아는 것이다. "아니 쌤, 그럼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하나요?" 을 친구가 국어 혹은 영어 지문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가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생각은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한다'는 생각이다. 영어로 돌아오자. 하나의 영어 지문을 읽고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라는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 기억하려고 하고, 다 이해하려고 해서'이다. 특히 수능영어의 경우 이런 필요가 없다. 왜? 아니 한 지문 읽고 한 문제, 푸는 거잖아. 그 지문의 핵심 내용, 즉 중요한 거 '하나' 물어보는 거다. 그러니 나는, 모든 정보를 기억할 필요도, 이해할 필요도 없고,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진술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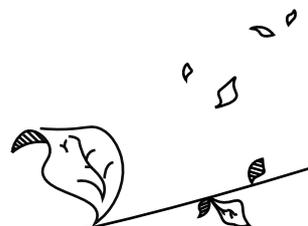
키스 가이드 북



여기서 나와야 하는 질문이, "그럼 읽으면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어떻게 아나요?"이고,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또 그 답대로 훈련을 시키는 것이 내 역할이다. 이 지문의 중요한 것을 찾아가는 '논리적 방법론'을 **KISS Logic**이라 부르겠다. 이는 KISS EBS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라임을 맞춰 지은 것이 아니다. 사실 주간 KISS EBS의 KISS는 Keep It Slow but Steady(3월부터 수능까지 꾸준히 EBS로 영어 공부했으면 하는 바람에서)이고, 이 KISS Logic의 KISS는 Keep It Short and Simple로, '가장 심플한 논리적 도구'라고 보기에 나온 이름이다. 보통 이렇게 독해에 관한 '글의 전개방식'을 설명할 때, 책이나 강의에서 굉장히 많은 전개방식을 보여주는 것을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 저렇게 많은 전개방식이 '참고'는 될지언정, 그 많은 전개방식을 '체화'하여 실전에서 써먹기는 참 힘든 일이라고 본다. 그래서 섀티는 가장 심플하게도, '두 가지 도구만 사용하여 일관되게 지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찾아 답과 연결시키고자 한다. 지금까지 현장 강의를 들은 수많은 학생들이, KISS EBS를 보고 왔다가 오히려 이 KISS Logic의 방법론과 강의력에 반했다는 얘기를 했으니, 믿고 보고 따라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도 좋다. 그 두 가지 도구는, 바로 **AB와 PS**이다. 두 개다 두 개. 우리는 영어 지문을 읽으며, 이 두 가지 도구만 생각하면서 독해를 하면 되는 것이다.

1. AB

첫번째 KISS LOGIC 도구, AB이다. 섀티가 생각하는, 수능영어의 가장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논리이다. 아마 이 AB라는 표현이 익숙할 것이다. 영어의 표현 중에 이 AB를 사용해 외우는 쉬운 표현이 있지 않나? 바로 **not (only) A but (also) B**이다.



키스 가이드 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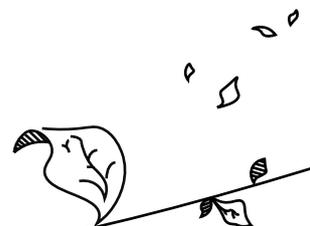


3.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2019. 수능 .33(24.2%))

Heritage is concerned with the ways in which very selective material artefacts, mythologies, memories and traditions become resources for the present. The contents, interpretations and representations of the resource are selected according to the demands of the present; an imagined past provides resources for a heritage that is to be passed onto an imagined future. It follows too that the meanings and functions of memory and tradition are defined in the present. Further, heritage is more concerned with meanings than material artefacts. It is the former that give value, either cultural or financial, to the latter and explain why they have been selected from the near infinity of the past. In turn, they may later be discarded as the demands of present societies change, or even, as is presently occurring in the former Eastern Europe, when pasts have to be reinvented to reflect new presents. Thus heritage is _____

_____. [3 점]

- ① a collection of memories and traditions of a society
- ② as much about forgetting as remembering the past
- ③ neither concerned with the present nor the future
- ④ a mirror reflecting the artefacts of the past
- ⑤ about preserving universal cultural values



키스 가이드 북



답은? 2번. AB, 잡았나요? 각각 한 단어로 딱 얘기해보자. A는 바로 과거. B는 현재다. 어휘력이 된다면, 이것만 잡았어도 이 지문은 정말 쉽게 읽히고 정말 쉽게 풀 수 있는 것이다. 정답률이 24%라는 것이 정말 슬플 뿐이다. 어떻게 AB를 잡고 답으로 연결시켰어야 하나,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자.

Heritage is concerned with the ways in which very selective material artefacts, mythologies, memories and traditions become resources for the present.

유산은 방식과 관련이 있다 / 이 방식 속에서 매우 선택적인 유물, 신화, 기억, 전통이 현재를 위한 소재가 된다.

→ 유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자 여기서 가져야 할 마인드. 어차피 어려운 빈칸 지문의 첫 문장은 '원소리지?' 모르는 게 정상이다. 아직 '뭐'를 얘기하지도 않았고, 그냥 '키워드 도입' 정도니까.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이, "어? 첫 문장부터 원 소린지 모르겠어.. 역시 영어는 개어렵!" 하면서 쫓고 들어가면서 그 뒤 문장들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맨붕 속에서 다 튕기는 것이다. 자, 마인드셋을 바꾸자. 어차피 수능영어 어려운 지문의 첫 문장은 어렵고, 무슨 소린지 모르는 게 당연하다. 그냥 이 문장은 '유산에 관한 얘기구나~' 조금만 더 나아가간다면 '아 유산이 현재를 위한 소재(자원)가 된다고~' 정도만 잡으면 되는 것이다.

